

세계의
길



기획특집
2016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현장24시
KT 직영매장 운영 현장을 가다
KTTU 카툰
평가 제도
KTTU 레이더
'Harmony Chef 요리 경연대회' 현장

봄은 희망입니다

공자는 <삼계도(三計圖)>에 이르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에 할 일이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언 땅이 녹고 연한 새순이 돋아납니다.
메마른 가지에서는 꽃망울이 터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봄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한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노력한 만큼 유지하고, 행동한 만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노력과 행동만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KT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하고 지체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유연하지만 능동적으로, 단호하지만 결연하게
희망을 결실로, 결실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Contents

vol. 24



| | | |
|-------------|----|---------------------------------|
| KTTU NEWS | 04 | KTTU NEWS |
| 기획특집 | 08 | 2016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
| 공감코칭 | 12 | 꿀팁 대인관계능력 잘하는법 |
| 이슈 & 사회 | 14 | 알면 더 재미있는 선거 이야기 |
| 현장24시 | 16 | KT 직영매장 운영 현장을 가다 |
| KTTU 카툰 | 20 | 병가 제도 |
| KTTU 클로즈업 | 22 |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로 불필요한 휴일근무 이제 그만 |
| KTTU 레이더 01 | 24 | 'Harmony Chef 요리 경연대회' 현장 |
| KTTU 레이더 02 | 26 | 조합원 초등학생 자녀 화상영어 교육참여자 후기 인터뷰 |
| KTTU 레이더 03 | 28 | 다운플랜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 사항 안내 |
| BIC | 30 | KT, 산업별 클라우드 활용사례 |
| 길따라 멋따라 | 32 | 취향저격 꽃구경 나들이 명소 |
| 독자후기 및 퀴즈 | 34 | 조합원 독자후기 및 퀴즈 |



KT TRADE UNION NEWS

2016년도 성과급 지급규모 및 지급일정

■ 적용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직, A직, C직 및 Sales직 (청원경찰 포함)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x 지급률
- 연간 지급규모(단위 %)
- G직 : 750±100 (직책750±150)
- A직 : 485~2,140 (직책465~2,160)
- C직/Sales직: 전체 성과급 규모를 월 균등화(62.5%)한 후

전월 실적을 반영하여 지급

- 월별 지급일정 : 2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월별 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우리가족孝-Day, 사기진작 프로그램 시행안내



■ 추진배경 : 노사상생협의회의 의결사항 (2015. 4. 8)

- 선정인원 : 50가족
- 3대가족 참여, 고령자/다자녀 우선, 본인 필참
본사/사업부서 : 7/ 강북 : 7/ 강남 : 7/ 서부 : 5/ 부산 : 6/ 대구 : 4/ 전남 : 3/ 전북 : 2/ 충남 : 2/ 충북 : 2/ 강원 : 2/ 제주 : 1
- 선정방법 : 지역본부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수련관 출장 생활입소, 기념품 증정
- 이용기간 : 5.11 ~ 5.13 / 5.16 ~ 5.18 / 5.18 ~ 5.20 중 택일
- 이용시설 : 대상자가 지정
- 추진일정
- 프로그램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 4.22(금)
- 장애인 자녀 가족대상 별도 추가(지방본부별 1가족 추천)
- 시행 : 2016년 5월

2016년 상반기 창업지원휴직 시행

재직 중 창업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개발 및 경력전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창업지원휴직을 시행한다.

- 지원자격 : 실근속기간 20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파견 등 제외)
-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대상분야 : 제한 없음(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창업분야)

- 휴직기간 : 1년 6개월 ~ 3년 6개월
- 의무휴직기간: 1년 6개월, 6개월 단위 최대 2년 연장가능

■ 선발절차

- 신청 : 신청서류(창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후 ERP 시스템 등록/신청
- 심의위원회 심의 : 1차심의(소속기관), 2차심의(인재경영실)
- 심의기준
• 1차심의 : 사업계획서의 사업성, 준비도, 적정성 및 창업가 정신 등 평가
- 2차심의 : 1차심의 통과자 대상으로 적합/부적합 검증(결격사유)
- 협약체결 : 소속 기관장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04.08(금) ~ 04.15(금)
- 1차 심의 : 04.18(월) ~ 04.20(화), 소속기관
- 2차 심의 : 04.21(목) ~ 04.22(금), 인재경영실
- 최종선정 : 04.25(월)
- 협약체결 : 04.29(금)
- 휴직발령 : 2016. 5. 1 자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건강검진 및 스트레스 검사

■ 건강검진

- 대상 : 상무보 이하 전직원 및 배우자(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 신청기간 : 2016.04.11(월) ~ 04.21(목)
- 검진기간 : 2016.04.29(금) ~ 10.31(월)
- 신청위치 : KATE → BIT ERP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신청 → 건강검진

- 검진비용 : 검진완료 후 회사에서 사후 일괄정산
- A형(30만원) : 만50세 이상 (1966.12.31 이전 출생)
- B형(20만원) : 만35세 ~ 만50세 미만 (1967 ~ 1981 출생)
- C형(15만원) : 만35세 미만 (1982.1.1 이후 출생)
- D형(15만원) : 배우자 전 연령

■ 스트레스 검사

- 내용 : 개인별 건강검진 신청(ERP) 시 시스템 내 팝업 창을 통한 검사
- 대상 : 전체 직원

※ 자세한 세부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6년 중학생 자녀를 위한 무료 인터넷 교육 신청안내



KT노동조합은 임직원 중학생 자녀를 위한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신청을 4월부터 접수한다.

- 이용대상 : 임직원 중등자녀 및 예비중학생(6학년)
- 기존 수박씨 이용자 : 1년간 자동 연장

- 신규 신청자 : 위 신청하기 버튼클릭 후 신청화면에서 KT직원 인증 후 회원가입

■ 제공사항 : 중등 교과과정 온라인 교육

- (수박씨닷컴, 중등 온라인강의 무제한 수강가능)
- 출석률 및 이용시간 우수자의 경우 족보닷컴 기출문제 제공서비스 지원
- 우수 장학생 선발을 통해 장학금 지급 등 학습지원

■ 신청방법 예시

- 1단계 : KT노동조합 홈페이지 → 나눔공감 → 무료인터넷교육 → 신청하기 접속
- 2단계 : 수박씨.com 접속 → KT직원 인증 후 →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가능

■ 문의사항

- KT노동조합 교육국장 ☎ 031-727-2844
- 경영지원담당 복지팀 ☎ 031-727-4037

2016년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열려, 복지공간 환경개선 등 10개 안건 의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31일(목) 오후 2시, 분당사옥 17층 회의실에서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노숙 안전 7개, 사측 안전 3개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협의회 결과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2016년 산업재해 대응계획 ▲직원 건강검진 개선은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현장 4대 복지공간(구내식당, 샤워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환경개선은 노사합동 실태조사 후 단계적 추진 △조합원 현장유니폼 지급확대는 현장실사 후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진 △KT스포츠타운 경기관람 관련 회사단체 응원계획은 지속 시행하며, 직원 개인별 할인 혜택 등의 방안은 최대한 마련해보는 것으로 의결했다.

※ 2016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및 관련 합의서는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2016년 제1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법정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여력 확대를 위해 2016년 1차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신청대상

- 퇴직연금제(DB형) 가입 직원 중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계약직 제외)
- 연대보증 복지기금 대부자는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 상환시 신청가능
- ※ 퇴직연금 가입유형 확인 :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관리

■ 신청유형

- DC형 :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
- 혼합형(DC+DB) :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 법정인출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가입자가 화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추진일정

- 금융기관별 전환 신청접수 : 2016.03.31(목) ~ 04.11(월)
- DC/혼합형 전환예정일 : 2016.04.28(목)
- 중도인출 가능일 : 2016.05.04 이후(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금융기관에 확인 필요)
- 퇴직금 전환 기준일 : 2015.12.31일자

■ 참고사항

- DC형 및 혼합형 전환 주기 : 연 2회(매년 1월, 7월)
- 법정중도인출 전환 주기 : 연 2회(매년 4월, 10월)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신청

- 개요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근로소득 기준)이 감액된 경우 그 감액분 일부 지원
 - 피크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10% 이상 낮아진 금액 지급
 - 임금피크 지원금(연간 한도 1,080만원)과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 7,250만원까지
 - 2016년 1월 ~ 2018년 12월까지(3년간) 한시적 지원

- 추진방안
 - 애초 회사 일괄신청 계획이었으나, 본인 자필서명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변경
 - 신청방법 : 회사 서류 준비 → 대상자 송부(우편) →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자필서명)

- 구비서류 : 회사에서 일괄 준비하여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 ① 임금피크 지원금 신청서
 - ② 서약서 : 연도정산 후 지원금을 반환할 수도 있다는 내용
 - ③ 소득증빙 서류
 - 피크임금 확인서류 : 피크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금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도정산용)
 - ④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 임금피크제 도입사실 증명

- 신청주기 : 매 분기 (익월 말 이전 신청)
 - 시뮬레이션 결과 월별 신청 시 연도정산에 의해 환수대상자 대량 발생
 - 분기별 신청하더라도 연도소득 변동 등에 따라 일부 환수 발생 예상
- 향후일정
 - 매 분기별 지원금 예상내역 개별 안내(매 분기 익월 중순경 메일발송)

참고사항)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정산이란?

연도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근로소득 기준으로 피크임금 90% 금액과 해당 기간의 임금 차액만큼 정확하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여 그 차액을 환수 또는 추가로 지급하는 절차

- 전액환수(지원대상 아님)
 - 연도 정산 경과 기준감액률(10%) 미만 감액된 경우
 - 연간 총 소득이 7,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 부분환수
 - 연간 총소득과 임금피크 지원금 합계액이 7,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차이 금액
- 추가지급
 - 피크임금 대비 90% 금액과 해당 기간의 임금 차액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 이전 관련 안내는 조합소식 No.5029 -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2015-12-24)를 참조

1/4분기 노사협의회 상정안건 논의, 복지공간 환경개선 등 총 6건 요구



KT노동조합은 3월 25일(금) 제5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의를 열고, 1/4분기 노사협의회에 요구할 안건을 논의한 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노동조합 요구 안건(총 6건)은 복지관련 4건과 인사관련 2건으로 ▲복지공간 환경개선 ▲조합원 현장유니폼 지급기준 개선 및 지급유형 변경 ▲흡연부스 설치 ▲KT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혜택 추진방안 ▲제때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휴일 및 휴가 시 사내시스템 접근 통제 ▲근무상황에 따른 사내 메신저(OC)에 근무형태 표시 등이다. 특히, 정운모 위원장은 “현재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에 현장 조합원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 중앙노사협의회 위원명단

- 노동조합 측
 - 대표위원 : 정운모 위원장
 - 위원
 - 한호섭 사업지원실장 • 차완규 정책실장 • 최장복 조직실장
 - 홍정성 복지국장 • 전형집 정책1국장 • 박충범 정책2국장
 - 김인관 조직1국장 • 박병규 다온플랜사업본부장
 - 간사 : 유대중 지원국장

- 회사 측
 - 대표위원 : 황창규 회장
 - 위원
 - 이대산 경영관리부부장 • 이현석 Customer운영본부장
 - 최한규 Network운영본부장 • 박중욱 전략기획실장
 - 이공환 인재경영실장 • 신현옥 경영지원실장
 - 이성규 노사협력1담당 • 김무성 경영지원담당
 - 간사 : 윤성욱 상생협력팀장

노동조합, KT 제34기 정기 주주총회 참석



KT노동조합은 3월 25일(금) KT연구개발센터 강당에서 열린 KT 정기 주주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 주주총에서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제34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주요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날 주주총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2015년도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 정관의 목적사업에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업을 추가하고, 정년 관련 규정을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수정했다.

1등 KT분과위 열려, 오피스 커밍데이 시범운영 및 네트부문 해외견학 등 논의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22일(화) 오후 4시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노사상생협의회 산하 분과인 존경받는 1등 KT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사무집기 대개체

위한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수요조사 및 단계별 교체를 통해 사무공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을 협의했다. ▲오피스 커밍데이는 시범 운영 후 차후 만족도를 제고해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가족 孝-Day는 확대 추진하고 ▲네트워크 부문 해외견학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보완 후 시행하기로 했다.

KT그룹 분당아카데미 개소식, 그룹교육 실행 위해 조성된 복합기관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15일(화) 오전 11시 분당사옥에서 조합간부 및 회사관계자, 그룹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KT그룹 인재개발 아카데미 개소식을 진행했다. 분당아카데미는 2016년 본격적인 그룹교육 실행을 위해 분당사옥 3층과 5층에 조성된 교육기관으로 총 940평에 이르며 최대 6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개소식 참석자들은 KT Way, 강의장, 오픈스퀘어, 비즈센터 등 분당아카데미를 두루 시찰했고, 그룹 대리승격자 교육생들을 만나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KT그룹 분당아카데미는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소통과 통찰이 이뤄지는

창의적 복합공간으로 글로벌 NO.1 KT로의 비전달성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1등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산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사 합동추모제 실시 안내

노동조합은 먼저 가신 선배열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자 다음과 같이 추모제를 시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일시 : 2016년 4월 28일(목)
-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유토피아 추모관
- 연락처 : 031-673-7904



잊지않겠습니다

5.1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안내



한국노총 주최 2016 전국 노동자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일시 : 5월 1일(일)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청광장

조합원 실리 위해 단호하고 결연하게 나아가자! 2016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우리는 과거보다 나아졌고 지금도 진보하고 있다.

3월 17일(목) 오후 2시, 분당 사옥 대강당에서 KT노동조합 2016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위원장과 12개 지방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및 전국 대의원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KT 대표이사 황창규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본회의는 대의원 248명 중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사업보고 및 2015년도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016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등 2개 안건이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로 가결됐다. 정윤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자는 노력하는 만큼 지키고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도 진보하고 있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조합원의 실리를 하나라도 더 보장하려 노력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위원장은 계속해서 “2016 KT노동조합의 깃발을 들고 현장강화와 폭 넓은 연대로 유연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단호하면서도 결연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희망은 결실로, 결실은 현실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전국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한노총의 핵심조직으로서 노사가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KT노동조합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독려한 뒤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주시고 노동계약 저지에 대해서도 적극 애 써달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격려를 보냈다. KT 황창규 회장도 덕담을 건넸다. 한 해 사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노동조합의 가장 큰 행사에 참석한 황 회장은 “KT가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달성에 성공한 것은 임직원의 열정과 도전, 노동조합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피력한 뒤 “회사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적극 귀 기울여 종사원에게 보답하려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글로벌 1등 KT로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인사했다.

올해는 KT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린 지 34년이 되는 해. 1982년 1월 6일 설립 이래 KT노동조합은 많은 역사를 써왔다. 직선제를 통해 민주노조의 기틀을 마련했고, 명동성당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사업분사에 맞섰으며, 기나긴 투쟁 끝에 임금저하 없는 주5일근로도 쟁취했다. 이후 그룹차원의 징계자 대서면, 무급휴일근무 근절, 지역단별 프로모션철폐,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고충사항 개선 등, 조합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실 틈 없이 달려 왔다. 조합원 가정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무료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노사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선 작금의 KT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것이다. 모두가 지지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은 이상향에서나 가능한 바, 신선한 공감을 느끼는 시각도, 걸만 번지르르 하다고 냉소하는 시각도 분명 존재할 터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다양한 시각을 채찍과 당근 삼아 지금도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모든 조합원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T를 만들겠다는 절실한 바람을 안고, 조합원들의 울타리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오늘도 전열을 정비 중이다.



2016 사업방향 핵심은 조합원 기 살리는 활동

중사업자 자존심 살리는 임금/고용안정 쟁취!

노동조합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주요 안건인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했다. 따라서 2016년에는 현장 밀착활동으로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 기를 살리는 활동'과 '노사 합의사항 이행 강제'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월 1회 조합간부 현장 근무제를 도입하여 조합원과 집행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찾아가는 조합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취합한 내용을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기간 여러 번 강조한대로 정윤모 위원장의 공약사항이자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실행의지를 내보인 노사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에도 더욱 매진해 조합원의 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럼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몇 가지와 세부 추진방법을 살펴보자.

01 | 단체교섭 승리

- 조합원 요구파악
- 교섭요원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 실시
-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회사경영 분석 및 대응팀 운영
- PS체계 현실적 개선으로 실질적 성과배분 가능 노력 등

02 | 노사합의사항 준수 철저이행

- 현장 방문 통한 여론수렴 및 모니터링
- 노사협의 시 준수사항 수시 확인
- 사전감시 및 예방활동 지속 시행

03 | 허수경영 고발센터 운영

- 수시현장 실태조사 통한 문제점 파악
- 노동조합 홈페이지 고발센터 운영
- 일상교섭으로 문제해결 및 결과 피드백
- 지방/지부 조합원 간담회

01

단체교섭 승리

02

노사합의사항 준수 철저이행

03

허수경영 고발센터 운영

04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로 자부심 강화

05

조합원 행복추구 길잡이 정책 추진

06

조합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07

연구하여 혜택 받는 복지제도 개선

08

각종 실태조사 실시



04 |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로 자부심 강화

- 복무시스템 개선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
- 당당하게 사용하는 안식년 휴가 정착
- 임금피크제 지원금 행정처리 지원
-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추진

05 | 조합원 행복추구 길잡이 정책 추진

- 힘이 되는 복지제도 등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행복 가이드' 제시
- 안식년 위한 휴가기간에 적합한 휴가장소 소개
- 친가족 문화정착 유도 및 가족 체험행사 추진
- 자기계발 위한 추천학원 및 이색취미 등 소개

06 | 조합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 부모대상 해외문화 체험 실시
- 조합원 자녀 온라인 교육 및 글로벌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07 | 연구하여 혜택 받는 복지제도 개선

- 타 사업장 인사, 복지, 복무 등 벤치마킹으로 관련자료 수집
- 타당성 연구 및 분석 후 적용방안 추진

08 | 각종 실태조사 실시

- 사안에 따라 노사합동 또는 단독으로 실태조사 실시
- 영업에 대한 정책, 사업에 대한 이슈사항 적극 해결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은 뚜렷하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힘 있는 노동조합, 전문화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사가 좀 더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조합원과 회사,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올해 조합원이 결실을 느낄 수 있는 한 해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므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계를 선도하며 '희망은 현실로, 결실은 현실로' 만드는 담대한 도전의 성공을 위해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제도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표창을 수상한 우수 조합원 명단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표창 : 정성호(강북지방본부)
- ▲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표창 : 노일철(본사지방본부), 유광섭(강남지방본부)
- ▲ KT노동조합 위원장상 : 하중열(대구지방본부), 주현수(충남지방본부), 이학승(충북지방본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대인관계 노하우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중 51.2%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중 40%는 퇴사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답도 없고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속을 썩이는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 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직장 내 대인관계 개선 노하우를 알아보자.



직장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성향 파악에 앞서 갖춰야 할 행동은 갈등을 빚는 상대를 겸허한 자세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측면만으로 선불리 단정 짓거나 편견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는 진단 포인트

첫째, 업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먼저 상대의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영업부 관리직인데도 영업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내리지 못하는 상사의 경우, '영업 부문에 실무 경험은 없지만 다른 부문과의 협력 경험이 많아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처럼 그 사람의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파악한다. 그러면 이 상사에게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지 알게 된다.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 탓을 하는 경향은 어느 정도인가?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명한다
- 실수를 해도 자기정당화를 하거나 자신은 피해자라고 한다
-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 자기주장이 강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자신을 최우선으로 한다
- 자신이 상처를 받으면 복수심에 불탄다

의외로 이런 성향의 사람은 상처받기 쉬운 내면의 소유자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무척 신경 쓰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아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눈치가 있는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한다.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자신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부터 되짚어보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한 포

인트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타인의 지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기 쉽다. 또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역시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편 상대의 기분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개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성향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법

첫째, 업무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전략

상사나 선배, 고객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어 전략을 써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접촉해 왔을 때 잘 받아넘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후배나 부하 직원처럼 내가 지시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맞춰 지도하는 전략을 쓴다. 이때 상대방의 수준을 고려해서 한 단계씩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는 모범을 보이고, 때로는 실패를 겪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과 경험을 늘릴 수 있도록 협조한다.

둘째, 남 탓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전략

남 탓을 하는 사람에게는 방어 전략을 쓴다. 또 상대방부터 공격 받았을 때만 방어하고 되도록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하고 있는 공격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 태도에 대해 지적하면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반발할 뿐이다. 게다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지적이라 해도 변명을 하거나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성향의 동료가 있을 때는 남 탓을 하는 경향에 특히 주의하면서 문제행동을 개선할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셋째, 눈치가 없는 사람에 대한 전략

눈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므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도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찾아내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부족하지만 섬세한 작업을 묵묵히 해내는 능력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단순 작업에서 의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의 사람에게는 협조나 소통은 포기하고 단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다. 더불어 그 사람의 적성을 찾아내 잘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SSUE & SOCIETY

선거기간 3년? 투표 안하면 벌금이 5만원?

전 세계 선거 이모저모

선거란, 그 어떤 차별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투표행위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계약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근대적 의미를 기반으로 전 세계는 각 상황과 조건이 반영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국의 이색 선거제도를 소개한다.



그리스, 2700년 전 민주선거의 원조

시민들에 의한 공화정을 추구해온 고대 그리스에선 무려 2700년 전인 BC 683년부터 투표를 통해 권력자를 선출해왔다. 귀족들은 투표를 통해 1년마다 집정관(Archon)이라 불리는 9명의 의원들을 선출했으며, 집정관들은 토론과 투표를 통해 아테네의 정치를 이끌어갔다. 수많은 도시국가를 형성한 고대 그리스지역에선 수많은 형태의 선거제도가 있었다. 스파르타에선 후보자들

이 연설하는 동안 군중의 박수와 환호의 크기로 당선을 결정하는 재미난 제도가 성행하기도 했다.

호주, 투표율 95%의 비결은 벌금!

캥거루의 나라 호주에선 투표가 권리 이전에 의무에 속한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5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호주에선 투표율이 무려 95% 이상이나 된다. 호

주의 의무투표는 1915년 퀸즐랜드(Queensland)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 실시된 이후 연방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1924년부터 전국의 모든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다.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와 달리 호주는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에 따른 순번을 매기는 선호도투표(Optional Preferential Vote)를 실시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 또한 독특히 거두고 있다.

일본, 고3 수험생이 투표하는 나라

지난 해 일본에선 고령화의 영향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여전히 만 19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최근 치러진 우리나라 20대 총선에서 선거일(4월 13일)을 기준으로 1997년 4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998년생 출생자도 어른으로서 정당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

일본의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선거제도는 바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수기로 직접 작성한다는 점이다. 이는 투표자마다 다른 필체를 반영함으로써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일본만의 특별한 선거제도다.

사우디,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 여성의 참정권을 금지해왔다. '여성은 월경 때마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성의 권리문제가 부각되고 201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해 지방선거에서 21명의 여성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위임투표로 유권자의 편의 반영

영국 역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영국은 총선과 대선을 따로 치르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각 정당 의원후보들에게 투표해 원내 다수당을 가린 후, 원내 1당 총수가 자동적으로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원내 1당으로 등극한 정당의 총수는 자동적으로 국가의 수상으로 선출된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에 해당하는 우편투표를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타인에게 투표를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영국 정치권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45일이나 투표하는 선거인단제도

미국 선거제도의 독특한 점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혼합되었다는 것이다.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는 미국의 50개 주의 유권자들이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그 선출된 대표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각 주의 선거인단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들은 유권자들을 대신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 역시 사전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기간과 달리 각 주마다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45일까지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선거구를 찾아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바티칸, 쏠! 은밀하게 교황을 추대한다

엄청난 권위에 비해 매우 조용하게 치러지는 바티칸의 선거는 언제나 전 세계의 이목을 불러일으킨다. 교황선거라 불리는 콘클라베(Conclave)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만큼이나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실제로 교황을 선출할 때는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차단한 채 투표가 진행되는 데 별도의 후보자 등록이나 선관위 구성없이 매우 단출하게 진행된다.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들은 하루에 두 번씩 교황으로 선출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며 전체 추기경의 2/3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생길 때 굴뚝에 흰색 연기를 뿜어내며 교황 선출을 만천하에 알린다. 1241년에 최초로 행해진 교황선출은 만장일치를 보기 위해 무려 3년 동안이나 치러졌으며, 그 폐단을 막기 위해 2/3 이상 추천된 후보를 교황으로 선출하는 오늘날의 콘클라베 제도가 완성되었다.

참정권의 역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과 땀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민주적 선거제도를 이 땅에 접목할 수 있었다. 나에게 주어진 한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상권의 흐름과 직영점의 고충, 머리가 아닌 몸으로 알게 되죠!

KT직영매장 운영 현장을 가다

조합원들의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직영점의 새로운 운영을 꾀한다는 취지의 직영매장이 지난해에 이어 2기로 접어들었다. 세일즈 기법을 기획하는데서부터 영업과 유통제도의 효율성을 피드백하고, 실전경험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등 파일럿 매장의 역할은 모험이자 한편 설레는 도전이다. 급격하게 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현 시기임에도, 기우를 뿌리치고 이들은 안정적인고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데. 유통단별 직영매장 8개소 가운데 두 곳을 찾아가 그 비결과 속내를 들여보았다.



KT m&s 역삼역직영점



친절 앞세운 감성케어로 직장인들을 사로잡다

오피스 상권의 중심에 자리한 서울 강남의 역삼역 직영점은 분위기 또한 주변과 닮아있다.

“고객의 90%가 직장인입니다. 낮에는 무척 바빠요. 친절하게 차라도 한잔 권하고 사소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직영점이라는 홍보는 필수죠. 그러다보면 영업으로 연결되고 KT의 이미지도 오릅니다.”

줄곧 걸쳐온 마케팅매니저 웃은 잠시 벗어둔 채, 올 한해 매장을 책임지고 이끄는 점장으로 서게 된 이흥찬 점장은 “체감온도가 확실히 다르다.”며 운을 띄웠다.

대리점에 정책을 전달하고 대표들과 소통만 담당하던 간접영업이 아닌 직접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파일럿 직영점에 오기 전까지 지원역할만 하다가, 고객 앞에서 직접 운영을 하러니 몸이 얼어버리더군요. 전산경험도 없고 업무처리도 늦어 처음 한 달은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꽤 익숙해졌습니다.”

파일럿 직영점의 직원은 평가 우수자와 영업경험자의 지원 그리고 추천에 의해 선발위원회에서 파견 선발한다. 지난해 1기로 24명이 9월부터 8개 매장에 배치돼 목표 대비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발판을 닦은 이후, 올해는 유선경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파일럿 직영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세일즈 기법을 개발해 확산하는 모델 숏, 신상품 출시 때 경쟁사 판촉활동이나 판매 노하우를 취득하는 등 정책을 살피는 안테나 숏, 그리고 대리점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트레이닝 숏의 3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1기의 경험을 토대로 2기는 모델 숏 역할을 중점으로 트레이닝 숏 역할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역삼역직영점에 파견된 조합원은 모두 세 명, 이 점장을 비롯해 김원주, 김연주 두 명이 컨설턴트로 파견돼 기존 m&s직원들과 함께 일한다.

오전 9시30분에 출근해 밤 8시30분 퇴근 때까지 줄곧 서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고,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 외에는 주말도 공휴일도 없다. 과거에 비하면 체력도 딸리고 가족 얼굴 보기도 힘들겠지만 이점장은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 보느냐”며 일축했다.

“힘들 땀 서로 의지하며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하루 실적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부담도 되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로 승부해요. 지난달에는 실적이 올라서 뿌듯했습니다.”

김원주 컨설턴트 또한 “그간 피상적으로 이해하던 고객의 KT에 대한 요구사항을 직접 보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매장의 입장에 서보니 상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와 닿아요.”라며 후회 없는 도전임을 강조했다.

판촉활동도 게을리 할 수 없다. 바로 옆 커피전문점과 연계해 쿠폰을 제공하는 가하면, 판촉용품도 직장인에게 적합한 간편한 휴대용품을 준비해 만족도를 높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후일 매뉴얼 작업을 거쳐 운영 자료로 만들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 직원의 화합을 위해 월요일 저녁이면 호프 데이를 열고 연령

이흥찬 점장





대가 낮은 m&s직원들과의 세대 차이도 좁히려 애쓴다고. 5월부터는 트레이닝숍으로서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 매주 사흘 간 마케팅매니저가 한명씩 매장에 근무하며 개통과 고객응대, CS업무를 경험할 참이다.

이흥찬 점장은 직영매장의 긍정적인 효과에 적극 동의한다. 까다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는 감정노동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에는 고객 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하던 자세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를 리드하며 연마돼 간다. 그래서 그는 직영매장 파견을 고민하는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파견 전에는 혹시 매장을 맡아먹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대리점을 이해하고 직접 운영을 해 보니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1년 후에는 주입식이 아닌 경험이 바탕이 된 가이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제 자신은 물론 회사도 분명 좋은 일입니다.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용기 내서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리스트부터 내방객 파악까지, 매일 영업을 수치화하다

부산 서면에 자리한 주디스태화직영점은 상권의 중심지답게 유동인구가 엄청나다. 거리 곳곳에는 KT뿐 아니라 경쟁사 대리점이 쉽게 눈에 띈다. 전국 파일럿 직영매장 가운데 반경 50미터 이내 대리점 수가 가장 많다는 이곳이 최고의 실적을 올린다는 사실은 한편 수긍되고 한편 의아할 정도다.

대리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직영점인 이곳으로 넘기는 일이 허다하고, 유동인구 대부분이 먹고 즐기러 오는 이들이라 실제 매장에 들어와 단말기를 개통하는 고객을 만나기도 어렵다는데.

“실적이 좋은 만큼 부담이 됩니다. 올해 목표를 다시 올렸습니다. 우리 매장 주변에만 17개의 직영매장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힘들죠. 내방고객이 한 달에 600명, 많게는 800명입니다. 1등 직영점인 만큼 고객 유형도 정말 다양하죠. 고객 분석과 신제품 출시 시 신속한 반응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이 매장의 장점입니다. 몇 달 만 있어보면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주디스태화직영점을 맡고 있는 최광민 점장은 작년 자발적인 지원에 이어 올해 다시 연장 근무를 택했다.

“97년 입사 이후 이런 좋은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월째인데, 연장을 하니깐 다른 점장들이 ‘왜 그러느냐고 묻더군요. 6개월은 짧아요. 해보지 못한 게 많아요. 이제 적응돼 해볼 만하니까 1년 더 해야겠다 싶어 본부에 건의했죠. 외근을 제외하면 하루 11~12시간씩 매장에 있어야 하니 몸이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101kg이던 몸무게가 10kg이 빠졌습니다.”

**KT m&s
서면 주디스태화직영점**



최광민 점장



최광민 점장을 도와 살림을 꾸려가는 KT직원은 박지연, 이재웅 두 조합원이다. 마케팅팀 유선영업과 채널관리 경력이 있는 박지연 조합원은 최광민 점장과 호흡이 잘 맞다. 그녀 역시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1기 자원에 이어 다시 연장 근무를 택했다. 매니저 업무만 담당하다 이번 2기로 파견된 이재웅 조합원은 현재의 대리점 운영이 앞으로 신규점 육성에 산 경험이 되리라는 판단 하에 지원을 결심했다. 누구든 주디스태화직영점에서 활력을 느끼기란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최광민 점장의 에너지가 한 몫 한다.

가장 집중된 자리에서 수많은 내방객을 상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최점장은 직원과 함께 매일 판매리스트부터 내방객까지 영업계획을 한 장의 장표에 기록해 관리한다. 영업이 수치화되면 일도 효율적이고 고객도 수치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 없이 지나는 주간도 제법 있었지만, 그간의 노력을 증명하듯 요즘은 실적이 오르고 있다.

“세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내방객도 많고 아이폰 수리 출장소까지 들어와 있으니 훨씬 많은 고객이 오갑니다. 임대 폰 문의에 서비스 등 모든 사람을 일일이 응대하지는 못하죠. 남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오가는데 실적이 그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10시30분부터 고객이 방문하면 종일 풀가동입니다.”

기존 네 명의 m&s 직원과 실적보다 인간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며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손발이 착착 맞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무엇보다 이곳에 온 이후 대리점의 수고를 피부로 절실히 느끼게 된 게 큰 수확이다.

“다시 매니저로서 대리점을 관리하게 되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킬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컨설팅 해줄 겁니다. 절대 잔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객들을 불러 모을지, 판촉물 하나에도 수많은 시도를 거쳐 다다른 팁을 공개하자면, 최점장은 단말기에 충실한 판촉물이 최고라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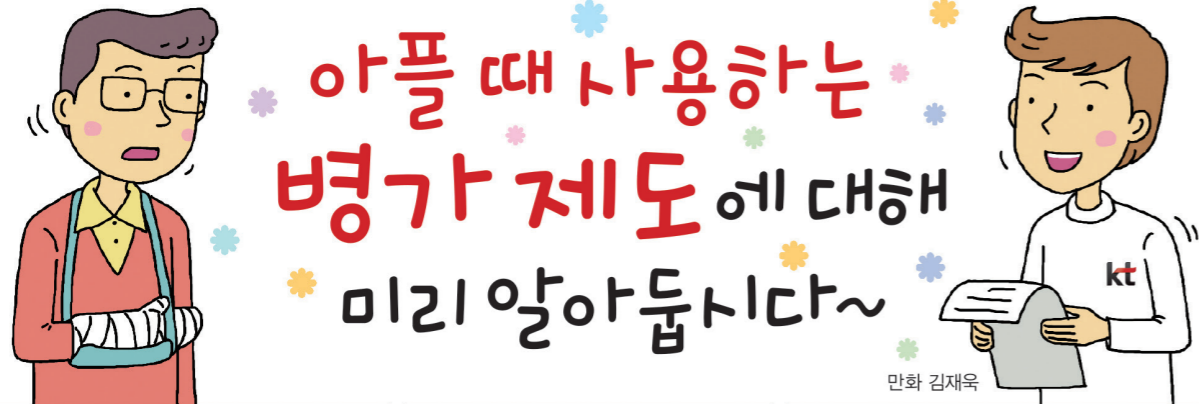
“단순히 선장품을 준다고 고객이 오지 않아요.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야죠.”

등록된 고객에게 이미지를 이용한 메시지를 보내고, 옆 스포츠용품 매장과 상생 전략을 꾀하는가 하면 샌드위치 전문점과 연계한 판촉도 이미 진행 중이다.

이재웅 조합원은 “새로운 분야라 두려웠지만 많이 배우고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광민 점장은 파일럿직영점의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체험한 장본인으로서 3기가 운영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경험들이 모여 KT의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5G시대 KT가 나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미래. 이걸 제 자신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회사에 정보를 줄 수 있는 파일럿 직영점 운영은 취직 자체가 좋아요. 100% 추천합니다!”



만화 김재욱

병가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일정 기간 실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회사는 병가를 연간 70일까지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병가는 건강문제에 대한 사후적 또는 치료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가는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염병에 걸린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경우에 부여합니다.

병가 신청위치는 이쪽으로~!!

Kate ▶ Worklink ▶ ERP ▶ HR ▶ 휴가신청 ▶ 복무유형 ▶ 병가

병가의 사용은 병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질병으로 매년 중복신청은 안 됩니다.

병가일 계산은 실시일 기준으로 동일질병인 경우는 과년도의 사용일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제출 서류 병가도 기간이 길어지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병가

입원 병가

입원병가일 경우, 병가일수는 연차휴가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 일반병가와 입원병가를 통합, 휴일, 휴무일 제외 연 70일 한도

제출 서류 입원병가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주 1회 이상)가 필요.

병가기간 종료 후에도 정상업무 복귀가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직권 휴직(1년) OR 직권 휴직 만 1년 이후에도 정상근로불가 시 직권면직

병가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

병가에 대한 급여기준

초과근무수당 : 휴가(병가포함)일수가 월 10일 초과하면 일수만큼 지급 제외
 급식통근비 : 병가 일수만큼 지급 제외
 병가시 : 기준연봉월정액(월기준급 + 월역량급 + 월직책급), 성과급 정상지급
 직권휴직시 보수 : 월기준급 + 월역량급만 지급(최대 1년)

복무관리 지침도 참고하세요.

제32조(연차 휴가부여의 준용) 제35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만큼 다음 각호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일수(실제 입원일수와 전후로 연속된 통원치료기간 포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질병에 대해 누계 7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1. 법정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삭제(2013. 7. 25)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8일 이상의 병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보건소장 포함)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이내에 복무권자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KT 임직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병가 중인 분들은 빨리 쾌유하세요!!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로 불필요한 휴일근무 이제 그만

스마트하게 일하고, 확실히 쉰다

휴일과 근무일, 가사와 업무의 구분은 모든 노동자들이 공감하는 가치이자 상식이다. 하지만 각자 처한 복잡한 근무 여건과 환경 탓에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합리적이지만 업무문화를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 정착과 '제때, 집중적으로 스마트하게 일하고 쉴 때 확실히 휴식'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캠페인은 그동안 실태 조사 전담반이 구성되고 각 지방본부로부터 휴일근무에 대한 자세한 의견과 현황이 모아지면서 회사 측에 근무문화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2~3월에 걸쳐 본사와 전국지부를 대상으로 휴일 복무점검을 실시했다. 휴일 복무 점검으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고객회선관리실과 CS지원팀 등 네트 교대근무자들이 대체 휴무로 인해 주중 근무인력 부족에 시달림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차질 발생 및 네트워크 상 대형 통신장애의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대체 휴무로 조합원의 리프레시/창업휴직 신청, 연차/안식년 사용에 눈치보기가 발생하거나 ▲휴일 개통을 원하는 고객을 평일로 유도할 때 고객만족의 저하 ▲네트워크 운용팀의 휴일근무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 발생 시 긴급출동의 이동시간 과다 소요 ▲고객회선관리실의 '부' 지정이 사무실 근무자의 업무 미숙 및 업무공백 발생 ▲비조합원(팀장 등)의 휴일근무 신청 없이 회의 등 근무 발생 ▲가판 등 영업 분야 사옥 외에서의 근무 확인 불가 ▲사옥 방문기록부 미기재 사항 발생 ▲교대 근무자의 반복 휴일근무나 휴일업무 계획 작성 및 결재로 번거로움 발생 등이 각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수집됐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난 3월 31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사내 전산망 OC의 근무형태 표시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근무문화를 정착하고, 불필요한 보고문화를 개선하는 등 업무 간소화를 비롯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절 캠페인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 캠페인은 본사를 비롯한 지역본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합원의 협조 아래 그 풍토가 하나둘씩 자리잡아가고 있다.

해 업무량 축소를 위한 효율적인 회의문화 정착을 회사에 요구했다. 또한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 조성을 위해 규정 위반 관리자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자의 휴일근무 근절로 조합원들이 겪을지도 모를 불필요한 휴일근무의 불씨를 해소하기로 했다. 노사 합동으로 혹은 노동조합이 불시에 출입자 관리 시스템과 사내 시스템 접근자를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불합리한 휴일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불시 단속으로 징계 및 처벌 강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겪을지 모를 불합리한 처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본부와 더불어 캠페인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캠페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휴일근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합동 또는 단독으로 월 1회 이상의 휴일근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매주 대체 휴무자/연차 신청자 명단을 지방본부에 연중 내내 통보함과 동시에 출입자 관리 시스템과 휴일 근무자를 분기에 1회씩 불시에 대조 점검하고, 사내 시스템 접근자 명단과 휴일근무자 역시 월 1회씩 대조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본부 역시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중앙본부에 보고하는 등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지방본부는 노사 합동 또는 단독으로 월 1회 이상 휴일근무 점검을 실시하고 대체 휴무 및 연차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 또한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자 회사 측 역시 불필요한 휴일근무를 억제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휴무자의 시스템 접근자 조사를 통해 1차 구두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징계에 이르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량 축소를 위한 불필요한 보고문화 개선과 효율적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휴일 복무 점검에 따른 건의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관리자 교육을 아울러 병행하기로 했다.

'맛의 지존', 최고의 셰프를 찾아라!

충청무선운용센터지부의 이색 체육대회, 'Harmony Chef 요리 경연대회' 현장을 가다.

지난 4월 8일, 캠핑족의 메카인 대전 상소 오토캠핑장이 들썩였다. 충청무선운용센터지부의 이색 체육대회인 '요리 대첩'이 이곳에서 열린 것. 대장금도 울고 가고 마사 스텐더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후문을 남긴, 충청도에선 요리 패나 할 줄 안다는 KT임직원들의 양보할 수 없는 요리대결. 최고의 맛을 두고 벌인 치열한 현장의 열기를 지금부터 생생히 전달한다.



요리 배틀 결전의 날, '오늘을 기다렸다'

이번 대회는 무선센터원간 소통 활성화와 노/시간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기존의 체육행사 대신 마련됐다. 충청무선운용센터의 임직원들은 8명이 한 팀을 이룬 총 8팀이 참가, 저마다의 솜씨와 창의력을 발휘해 열띤 요리경연을 펼쳤다. 대회의 규칙은 제한시간 내 각 팀을 대표하는 미션요리 1종과 선택 요리 1종의 메뉴를 완성해내는 것. 맛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차별화되면서도 트렌디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이 관건이다. 게다가 반드시 계란을 활용해야 하는 미션요리에는 1등 KT의 성과창출 의지가 듬뿍 담겨있어야 한다. 자존심을 걸고 우승을 노리는 각 팀원들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얼굴에는 열정과 패기가 가득하다.

참가자들은 먼저 9시 정각이 되자마자 마트에서 각종 재료를 쇼핑한 후 곧바로 재료 씻기와 다듬기에 돌입했다. 순위가 매겨지는 만큼 맛뿐만 아니라 장식, 플레이팅까지 완벽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아마추어 셰프들의 손끝이 부지런히 움직인다. 시각, 후각, 미각 등 모든 감각을 곤두세운 참가자들의 정성과 노력이 발휘되는 가운데 서로의 팀원을 격려해주는 모습부터 신중하게 플레이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진짜 프로 셰프를 연상시키는 진지한 모습까지. 지켜보는 사람마저 요리대첩에 더욱 몰입시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며 맛과 모양 모두 각각각색의 특징과 매력을 가진 요리들이 하나 둘 완성되자 심사하는 과정 역시 긴장감을 더하는 순간이 됐다. 완성된 요리는 심사위원들의 시식과 다양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우수상, 창의상, 도전상 순으로 우열을 가리게 된다. 드디어 마감시간. 심사위원들은 차별화, 맛, 시간준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 두근두근 참가자들의 애를 태웠다.

오감을 자극하는 화려한 요리들, 2016 최고의 셰프는?

과연 대전별 음식 격동의 최고 우승팀은 어디일까. 그 결과 영예의 1등상은 7조인 'Cook King'팀에게 돌아갔다. 7조는 계란을 활용한 미션 요리로 양파계란피자를 선보여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Cook King'팀은 고객인식 1등이라는 미션 아래 통신 3사가 올림픽을 진행하는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고객의 다양한 표정을 계란요리로 형상화 하여 손색이 없는 맛과 퀄리티를 냈다는 평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비주얼의 메뉴를 선보인 6조 '올킬' 팀이 차별화상을, 그리고 8조 '태양초의 후예' 팀이 도전상을 차지했다. 이 날의 행사는 센터지부내 임직원 모두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소 이색적인 춘계 체육대회



는 각자 숨겨두었던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과 함께 모두가 즐겁게 행사를 즐기는 한바탕 축제로 변모한 것이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감성케어

사실 충청무선운용센터의 이색 행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이디어맨인 이종대 센터장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일터를 구현할까'를 늘 연구하는 진주관 지부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행사처럼 충청무선운용센터는 이전에도 '숨은 보물 찾기' '엄마야 뻔 어디가' '타이(Tie)데이' 등을 선보여 임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한 7조의 조장이자 지부 집행위원 여성부장이자 오진선 조합원은 "처음에는 번거롭게 야외에서 무슨 요리경연대회냐고 걱정했는데 막상 공기 좋고 새소리 들리는 곳에 와서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며 음식을 만들다 보니 무척 유쾌했고 즐거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아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 못지 않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니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고객만족 즉, 조직원의 행복이 먼저 아닐까요?" 오진선 여성부장의 말대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여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종사원 모두가 합심, 협동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멀지 않아 어느 직장보다도 가장 근무하고 싶은 일터구현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충청무선운용센터지부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감성케어, 조합원들의 열정을 절로 이끌어내는 자율참여 추구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행사내용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Youtube URL : <https://youtu.be/l4Lk9OYzjRI>

영어 실력은 UP! 자신감은 두 배! “영어화상교육으로 꿈 향한 첫 걸음 내딛었어요.”

‘이 정도쯤이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연우는 외국인이 영어로 길 안내를 물어 와도 두렵지 않다. 과거에는 저만치서 외국인이 보이면 흠뻑 마주치기라도 할까 일부러 피하곤 했었는데 말이다. 지난 해 KT노동조합의 화상영어교육 수료 이후 영어를 대하는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다. 매번 짜증나던 영어가, 지루하던 수업이 교육을 받고 난 후부터 왠지 재미있어졌다는 연우. 영어와 친해질 수 있었던 화상영어교육 프로그램 6개월의 경험을 수줍게 들려 주었다.

영어가 이렇게 재미있다니

연우가 영어화상교육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아빠의 꾸준한 도전이 가져다 준 결과 덕분이다. “기대도 안했죠. 1기에 신청을 했었지만 선정되지 않았고, 2기 때도 신청자가 많아서 ‘설마’하는 마음이었어요. 경쟁률을 뚫고 추천으로 연우가 선정됐다고 했을 땐 말할 수 없이 좋았죠. 영어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식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좋은 기회라 여겨졌거든요.”



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 서울중부유선운용센터 정효운 조합원은 딸에게 영어실력을 높일 수 있는 6개월이라는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고 싶었다. 영어를 효율적으로 접하는데 있어 6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걸, 기뻐하는 아빠와 달리 정작 연우의 마음은 그리 달갑지 않았단다.

“평소 영어에 관심은 많았었지만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아빠 혼자 결정한 의견이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의 좋은 점을 차분히 설명하며 아빠 엄마는 연우를 달래고 다독였다고. 지금이야 웃으며 털어놓는 말이지만 사실 그때의 짜증은 영어교육이 싫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였다고 연우는 고백했다.

“일대일로 30분간 원어민 선생님과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걱정되고 부담이 됐어요.”

연우의 영어교육이 처음은 아니었다. 1학년 때부터 방과 후 수업도 했고, 학생 네 명과 선생님 한 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민을 위한 화상영어수업도 받았다. 하지만 일대일 방식은 처음이었다. 가족과 연우의 모든 일과는 매주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30분 간 진행되는 수업에 맞춰졌다. 공부에 방해라도 될까, 엄마 아빠는 꼭 달힌 연우의 방문 고리도 만지지 않았다.

“오늘은 영어로 많은 대화를 했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궁금했지만, 아빠는 6개월이 지날 동안 연우가 부담될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지켜보고 딸을 믿었다.

아빠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래요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화상교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다. 당시 5, 6학년을 대상으로 6개월씩 2차에 걸쳐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4학년까지 확대, 학년 별 70명씩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레벨에 따른 수준별 학습과 실생활에 적용되는 회화와 문장 습득, 문장 첨삭 지도에 주니어 토익 테스트까지. 이 모든 다양한 콘텐츠를 토대로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우수학생을 선발해 포상도 하고 있어 해당 자녀를 둔 조합원들의 만족도와 관심 또한 높다. 연우도 자랑스러운 포상을 받았다. 화상교육이 시작되기 5분 전부터 정자세로 앉아 바짝 긴장하며 시작한 수업은 시간이 지나며 어느새 자연스러운 놀이로 바뀌었다.

“길다고 생각한 6개월 수업이 나중에는 짧아서 아쉬웠어요.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과 일상생활 대화를 나누고 화면에다 직접 도형



도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퀴즈를 내서 열 문제를 다 맞으면 상품권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세 번이나 받았어요.”

서먹하던 선생님과 관계도 같은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부터는 급속히 친해졌다.

“제가 애니메이션 덕후예요. 퀴즈를 풀던 중에 정답으로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캐릭터가 나와서 맞췄더니 선생님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더 친해졌어요.”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수준별 교재에다 부득이 수업에 빠져야 할 일이 생기면 보강도 가능했다. 해외에서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어쩌다 딜레이 현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수업에 지장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선생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다.

“가능하다면 6개월 더 하고 싶어요. 이제는 외국인을 만나도 겁나지 않아요. 발음 교정도 힘들었는데 발음도 좋아졌어요. 3학년인 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향상되는 딸의 영어실력이 흐뭇하지만 한 정효운 조합원 또한 많은 조합원 가족이 연우처럼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더불어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참 좋습니다. 중학교 과정과 연계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대상범위가 넓어져서 많은 조합원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이의 영어 실력이 늘고, 부모로서 영어교육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연우의 장래희망은 아빠처럼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다. 체육과 미술과목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영어에 대한 흥미가 하나 더 늘었다. 그래서 영어화상교육을 시작하는 다른 친구들이 자신처럼 자신감을 얻고 영어와 친해졌으면 한다고. 훌륭한 기술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 한 발짝 다가선 연우를 위해 봄처럼 따뜻한 파이팅을 보낸다.

경조사 서비스 브랜드 다운플랜 홈페이지 리뉴얼

KT 전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KT노동조합이 기획하고, KT가 지원하는 경조 서비스 브랜드 다운플랜이 홈페이지 리뉴얼을 단행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리뉴얼을 속속 들여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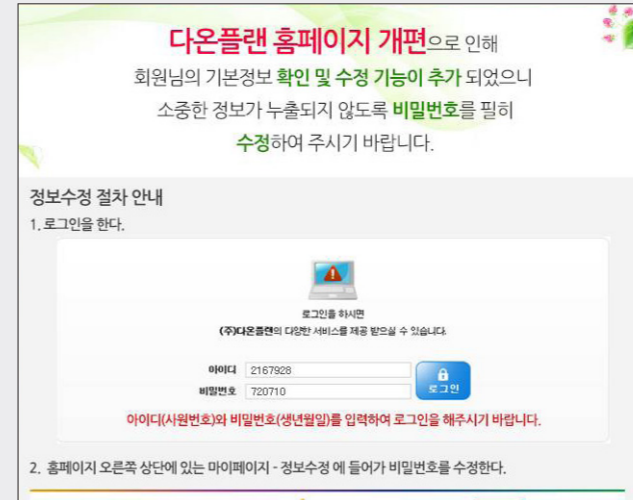
좋은 일을 드립니다!

다운플랜은 '좋은 일들이 다 오는'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순수한 고어 '다운'과 계획을 뜻하는 '플랜'을 합쳐, 좋은 일들을 계획하여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KT노동조합이 기획하고, KT가 지원해 전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다운플랜은 고품격 장례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망을 갖춘 대표 경조사서비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다운플랜은 KT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운영비를 최소화해 비용절감을 이루어 꼭 필요

한 부분에 품격을 높이는 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고 있다. 또 전국망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품격 있는 고객 서비스를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보기 편한 화면 구성과 높은 브라우저 호환성으로 비주얼적인 리뉴얼은 물론 개인별 회비 납부내역 확인, 무료 SMS 발송 서비스, 회원 정보보호 강화와 같은 기능적인 부분의 리뉴얼도 함께 이뤄졌다. 다운플랜은 앞으로도 신뢰와 성원,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경조사서비스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다.

01 | 회원정보 강화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강화된 암호로의 변경을 통해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이디는 사원번호, 비밀번호는 생년월일(yymmdd)인 초기 정보를 특수문자를 포함한 새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02 | 개인별 회비 납부 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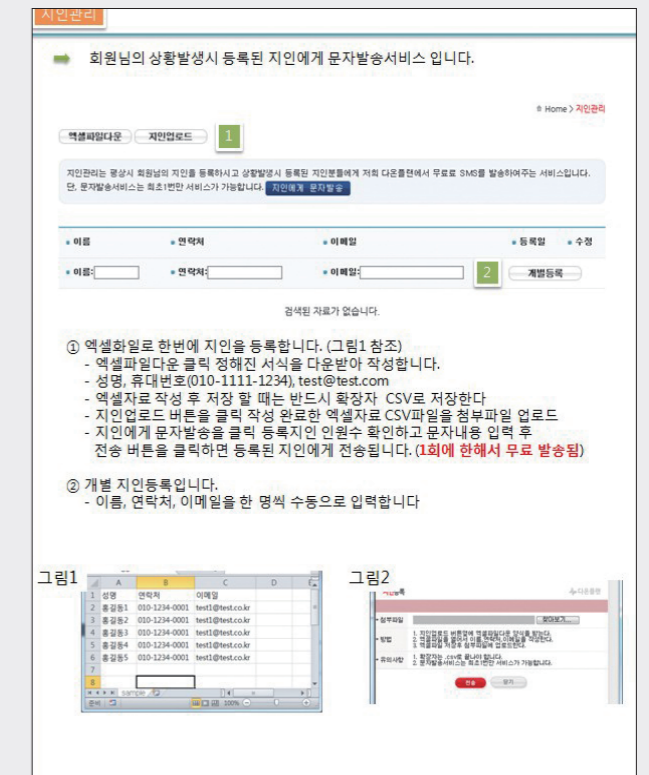
나의 회비 납부 내역 현황 및 가입 증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누적 납부내역과 연도별 납부내역을 가입 구좌별로 확인할 수 있다.

03 | 편리한 지인 관리

편리한 지인관리를 통해 무료로 SMS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역시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개선된 서비스.



(경조사 관련, 등록된 지인에게 SMS 1회 무료 발송)

‘BIC’ 폭풍성장하는 클라우드 KT, 기가토피아 타고 구름 위로 훨훨

우리나라 IT산업에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SNS, 자동주행, 보안,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을 실현하는 사물인터넷의 중심엔 빅데이터와 함께 언제나 ‘클라우드’ 기술이 존재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을 타고 전년 대비 40%라는 급속한 매출 성장을 이룩한 KT 클라우드 전략에도 장밋빛 전망이 그려지고 있다.



구름 위에 떠다니는 대용량 데이터



클라우드(Cloud)란, 말 그대로 구름을 뜻한다.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하드웨어 및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구름이 되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클라우드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퍼스널컴퓨터와 연결된 데이터 저장시스템이다. KT의 olleh 유클라우드가 바로 그 예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음악이나 동영상 등 대용량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 저장해놓고 원하는 때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다. 대용량 메일이나 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역시 USB를 통해 번거롭게 이리저리 복사하지 않아도 olleh 유클라우드만 있으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보편적인 형태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용 클라우드의 장점은 회사나 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에도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과 서버의 구매 및 재설치 비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한 추후 업데이트 비용까지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점 덕에 각 기업에선 경쟁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효율성 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이점을 보이고 있다. PC에 자료를 보관할 경우와 달리 외부 서버에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물리적 파괴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클라우드법 이후 시장 확대 가속화



KT를 위시한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이 전성시대를 맞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시행되면서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세계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법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산업을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발판삼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서비스와 솔루션 등 전 영역에서 40% 이상 대폭 성장하는 효과를 얻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후속조치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과 보안 인증제의 도입 체계도 조만간 확정하는 한편,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민간에게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둘씩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KT를 포함한 국내 통신 3사 및 클라우드 업체들도 인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클라우드 도입 기간이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요창출을 위한 시장선점 기라 업체들의 경쟁이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IT기업과 시장경쟁 불붙나?



시장에서의 경쟁은 국내기업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존의 AWS, IBM, MS, 구글, 오라클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코리아'를 외치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IBM이다. IBM은 올해 경기도 판교에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세돌 9단을 꺾은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쌍벽을 이루는 자사의 왓슨(Watson)을 도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아마존의 AWS는 얼마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번째로 서울 리전(Region)이 가동된다고 발표했다. AWS 서울 리전은 두 개의 가용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가용영역은 각기 독립된 전원, 네트워킹, 연결성을 갖추고 지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저돌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기업들도 활발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형 인프라에 편중된 지금까지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조를 과감히 바꾸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타겟층을 정교하게 설정하는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시장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을 놓고 국내외 우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한바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강자인 KT는 기가토피아의 비전을 클라우드 시장에 접목시켜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물인터넷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봄이로다 봄이야, 봄맛이 가자스라

꽃길따라 떠나는 봄 나들이 명소

방방곡곡에 봄빛이 완연하다. 산하는 형형색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봄의 절정은 찰나의 순간이다. 눈을 돌리는 순간 봄꽃은 소리없이 지고 만다. 그래서 봄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반기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바로 지금, 봄맛이를 나설 때다.

강화 고려산 진달래



고려산에는 약 100만㎡에 달하는 진달래 군락이 압도적인 장관을 선사한다. 서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도 함께 조망할 수 있어서 상춘객은 물론 등산객들의 봄철 산행 코스로 인기가 높다.

특히 강 건너 북녘 땅을 지척에서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고려산은 남한 최북단에 위치한데다, 해발 436m 고지여서 진달래가 늦게 피고 늦게 진다. 힘들게 산을 올라야 하지만 산행의 수고로움은 느낄 새가 없다.

능선을 따라 점점이 수놓인 진달래 사이길을 걷다보면 가쁜 숨소리가 아니라 탄성이 절로 나온다. 지친 몸과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기분이다. 고려산 등산로는 총 5개 코스가 있는데 강화역사박물관 주차장과 이어지는 제1코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주변의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 강화 평화 전망대와 연미정, 고인돌광장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고려산 진달래축제도 열린다.

태안 튤립

튤립의 계절이다. 봄 정취가 물씬 풍기는 튤립은 빼놓을 수 없는 봄꽃 중 하나다. 몇 송이 만으로도 우아하면서 고고한 기품을 느낄 수 있어서 사랑 고백을 담은 선물로, 신부의 웨딩 부케로도 인기가 높다.



충남 태안에서는 따사로운 봄 햇살과 잘 어울리는 다채로운 튤립들을 만날 수 있다.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태안세계튤립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화가들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300여 품종 총 150만송이의 튤립이 축제장을 아름답게 물들일 예정이다.

특히 모나리자, 마블린 먼로 등 예술작품이나 인물을 튤립으로 형상화 한 조형물 등 주제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중 개최되는 태안빛 축제와 함께 상춘객들에게 꽃과 빛의 황홀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태안 튤립축제는 지난해 '세계튤립대표자회의'에서 세계 5대 튤립축제로 선정되는 등 매년 수준 높은 튤립축제를 선보이고 있다.

금산 홍도화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수놓은 빨간 꽃이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금산에서는 색다른 매력의 봄꽃을 만날 수 있다. 치명적인 선홍빛이 매력적인 홍도화다. 훔날리는 붉은 꽃눈을 맞으며 걷다보면 절로 황홀경에 빠질 정도다. 홍도화는 꽃복숭아 나무의 일종이다.

그 중에서도 붉은 꽃이 피는 나무를 붉은 복숭아, 즉 홍도나무라 하고 그 꽃을 홍도화라고 한다. 만첩홍도라고도 부른다. 홍도화의 붉은 겹꽃은 가지를 뒤덮을 만큼 풍성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뽐낸다. 가지마다 총총이 달린 선명한 붉은 꽃이 멀리서도 눈에 띄만큼 화려하다.

여리고 잔잔한 봄꽃에 익숙했다면 화려한 홍도화로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금산군 남일면에서는 홍도화 축제가 열린다. 전국에서 홍도화를 주제로 한 축제는 금산군 남일면이 유일하다. 홍도화길 꽃마차 여행, 홍도화 산춘가요제, 실개천 송어잡기체험, 나무곤충 만들기 등 홍도화축제만의 특별한 체험과 공연이 홍도화 구경에 소소한 재미를 더해준다.

남원 바래봉 철쭉



지리산 바래봉은 아름다운 비경과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환경지역으로, 해발 500m의 운봉고원을 굽어 보는 우리나라 제일의 철쭉 명소다. 철쭉은 해발 약 500m에서 만개하기 시작해 정상으로 번져 나간다.

5월 중순이 되면 정상 부근까지 철쭉꽃이 온 산을 뒤덮는 장관을 연출한다. 철쭉 군락은 바래봉을 중심으로 세걸산까지 약 3.5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등산로를 따라 붉게 피어있는 철쭉들과 나란히 걸으며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철쭉 군락 인근에 위치한 드넓은 목장 용지의

아름다운 경관도 빼놓을 수 없다. 청정 고원 지대인 바래봉은 비옥한 농토에서 지리산 청정수로 키운 고랭지 과채류와 산채, 토종 흑돼지가 유명하다. 이를 이용한 향토 음식은 바래봉을 찾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달 간 남원 바래봉 철쭉축제가 열린다.

고창 청보리밭



지천에 널린 화사한 봄 꽃들에 익숙해졌다면 연둣빛 신록을 만나러 떠나보자. 전북 고창군 공음면의 청보리밭이 따사로운 봄볕 아래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된 고창 일대 99만여㎡에 펼쳐진 청보리밭은 봄바람에 녹색 물결이 일렁이는 '초록의 바다'를 연출한다.

청보리밭의 청명한 봄기운에 가슴이 탁 트이는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쾌청한 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초록 물결을 바라보노라면 시원한 청량감마저 느껴진다.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열린다. 축제 때는 '청보리 사이길 걷기'와 '보리피리 불기'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놀이와 민속장터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Voices of Readers

고객의 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mabin@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송파지부 가락CM팀 서성제

경기가 침체되어 모두 어렵다고들 합니다. KT에 근무하니 안식년 휴가와 수련관 등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으로 많은 수혜를 받고 있네요. 직원과 동행하는 '희망의 길'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꼭 함께 했으면 합니다.

서부고객본부지부 CS지원팀 황춘식

바쁜 업무 속에 KT의 새로운 정보와 변경된 부분 등 이슈와 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현장 24시> <토닥토닥> <길 따라 멋 따라> 너무 좋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강서무선운용센터지부 안양엔지니어링팀 손초이

<토닥토닥> 코너에 소개된 직급별 노래방 추천가요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직 회식에서 노래방을 간 적이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추천 가요를 불러볼까 합니다. 또 안식년 휴가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지 부탁 드립니다.

도봉지부 CM팀 김수한

새 희망의 길에 있기에 항상 좋은 정보 잘 읽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 큰 깜짝 이벤트도 부탁 드려 봅니다.

대전유선운용센터지부 IP망팀 김종수

해외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KT서비스를 읽고 나서 문득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네요. 저의 희망사항이지만 제주에도 KT 수련관이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지부 SMB고객팀 김상원

희망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만, 반대로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옆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사지부 IT기획실 과금결제플랫폼팀 김범석

조합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들은 노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 사항도 알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정리되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점은 독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지하철 엔지니어링 파트도 잘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1등 KT를 위해 묵묵히 근무하는 조합원을 떠올리게 하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숨어있는 KT맨을 찾아서 칭찬하고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네트워크운용센터지부 운영계획부 성현주

KT의 네 가지 동력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앞선 기술을 먼저 확보하여 기술 표준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부산고객본부지부 유동지원부 황병호

새 희망의 길은 항상 애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도 좋은 정보와 유익한 글이 많아서 참 좋았고, 안식년 휴가제도를 카툰으로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활약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에서 1등 KT의 숨은 일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기술컨설팅단 유선컨설팅팀 전덕영

참 유용한 정보인데 놓치기 쉬운 정보들, 특히 직원복지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슈&사회에서 다룬 sk텔레콤 c인수합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KTTU QUIZ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가로 1 지난 4월 8일 대전 인근 상소 오토캠핑장에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 지부는 어디일까요?

세로 1 이달 <길 따라 멋 따라>에 소개된 전북 고창의 명소예요. 녹색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초록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곳은 무엇일까요?

세로 2 다운플랜에서 최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것을 리뉴얼 했죠.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운플랜, 그 숨길수 없는 가치

(주)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웨딩서비스를 약속하는 경조사브랜드입니다. 고객님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조사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다운플랜의 차별성

상조 1구좌가 다 똑같은 구좌가 아닙니다. 정직한 상조회사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KT그룹 임직원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상조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상조회비 100% 금융기관에 적립!
상조회비 원금 모두가 보존되는 상조회사는 전국 5%도 되지 않습니다.
- 운영비는 최소로, 서비스 비용은 최고!
일반 상조회사는 상품금액의 30% 이상이 운영비로 다운플랜은 상품금액의 5% 내외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추가요금은 근절, 음식비/사용료 등 비용 절감은 최고!
- 다운플랜 전화 한 통화로 전국 800여개 웨딩홀을 한번에 checking!
- 철저한 감시시스템 가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KT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